

韓國 都市家計의 客觀的方法과 統計解釋方法的 貧困線 設定*

류 정 순**

- I. 緒論
- II. 理論的 背景
- III. 研究方法
- IV. 研究結果
- V. 要約 및 結論

I. 緒 論

이제까지 貧困線 算出의 기본이 되는 最低生計費는 일반적으로 理論的 生計費와 實態的 生計費로 분류되어 왔다. 그리고 마켓바스켓방법과 앵겔계수방법은 理論的 生計費 설정방법으로, 實態調查資料를 사용하여 統計的으로 貧困線을 도출하는 방법은 實態的 生計費 설정방법으로 간주되었다. 또한 위의 방법들은 客觀的方法으로, 일반사람들의 主觀的 評價에 기초하여 貧困線을 도출하는 방법은 主觀的方法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면 마켓바스켓방법과 앵겔계수방법도 實態調查 자료에 근거하여 산출되기 때문에 理論的 生計費라고 부르는 것은 무리이다. 또한 엄밀한 의미에서 客觀的 貧困은 統計結果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貧困線을 추정하는 消函數法, 알렌-보울리법, 轉換費點 分析法 등의 방식 뿐이며 다른 방법들에는 빈곤선의 설정에 주관적 접근과 객관적 접근이 복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主觀客觀을 기준으로 빈곤을 분류하는 것은 모순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貧困線의 測定方法을 1) 實態調查資料에 근거하더라도 必需品를 규정하고 규정된 必需品의 양과 질을 정하는 과정에서 研究者의 規範적 價値意識에 따른 판단의 작용 폭이 비교적 크게 나타나는 마켓바스켓방법을 規範的

* 이 논문은 박사학위 논문의 빈곤의 측정방법과 부록을 정리한 것임.

** 배재대학교 가정교육과 강사

接近方法으로; 2) 輿論調査로부터 必需品 與否와 必需品의 基準을 導出하거나, 貧困線이 얼마인가를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물어보아 그들의 主觀的인 評價를 토대로 貧困線을 도출하는 라이덴方法과 맥과 랜슬리(Mack & Lansley)方法을 合意的 接近方法으로; 3) 統計的 方法으로 산출된 자료를 재해석하여 적합한 지점이라고 판단되는 지점을 貧困線으로 간주하는 순수상대빈곤, 유사상대빈곤방법을 統計解釋的 接近方法으로; 4) 통계적 方法으로 貧困線을 도출하는 소비함수법, 전환점분석법을 客觀的 接近方法으로 그리고 5) 剝奪指標方法의 5가지로 분류하고자 한다.

이제까지 韓國사회의 貧困線과 貧困線 산출의 기본이 되는 최저생계비는 주로 마켓바스켓방법(장현준¹⁾, 배무기²⁾ 한국노총³⁾,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이라 칭함)⁴⁾, 안병근⁵⁾과 라이덴 방법(이중희⁶⁾, 윤석범⁷⁾, 이정우⁸⁾, 박태규⁹⁾)으로 측정되어 왔다. 그리고 統計解釋方法과 客觀的 方法의 貧困線은 독자적으로 행해지기 보다는 다른 연구들의 결과를 비교하기 위한 보조지표로서 활용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마켓바스켓방법은 연구자에 따라 貧困線 設定의 근거가 되는 貧困의 概念과 研究者가 채택하고 있는 貧困의 概念에 적합한 生活水準이 研究者와 研究目的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에 연구자에 따른 貧困線의 격차가 3배에 가까운 실정이다¹⁰⁾. 라이덴 方法 또한 일반인들은 대개 응답에 耐久財 購買을 위한 저축이나 自家 所有者나 傳貰사는 사람들의 귀속임대료를 제외시키며 건강할 때 필요한 醫療費 정도로 응답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貧困線은 과소 평가될 위험성이 있으며 실제로 1970년대 중반의 네델란드의 조사에서는 公式的인 貧困線보다 낮게 나왔다¹¹⁾. 뿐만 아니라 응답자들의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最小所得을 높게 응답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표본가구의 대표성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 1) 장현준, “최저생계비 산출모형과 도시부문 생계비 계측 결과”, 사회보장연구, 1986, pp.97-121
- 2) 배무기, 조우현과 박덕제, 최저임금 적용대상 도시근로자 최저생계비 산출모형 개발연구, 서울대학교경제연구소, 1987
- 3)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도시근로자 최저생계비, 1996
- 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1989
- 5) 안병근, 한국의 도시부문 최저생계비 추정과 그 정책적 함의,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 6) “빈곤의 정의 및 측정”, 홍기용편, 도시빈곤의 실태와 정책, 단국대출판부, 1986
- 7) 윤석범, 절대빈곤층에 대한 대책에 관한 연구, 경제과학심의회, 1981
- 8) 이정우, “한국의 생활보호정책 재검토”, 사회보장연구, 제6권, 1990
- 9) 박태규, “한국의 최저생계비 추계에 관한 연구”, 재정논집, 1991
- 10) 1993년 4인가족의 빈곤선은 안병근이 578,213원으로 추정하는데 반하여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1,557,107원으로 추정하였다.
- 11) Veit-Wilson, J. H., “Consensual Approaches to Poverty Lines and Social Security”, Journal of Social Policy, Vol 16, No. 2, 1987

대부분의 연구에서 표본의 수가 전국가구의 대표표본으로서는 미흡한 실정이다.

위의 방법들이 가지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貧困을 불평등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통계적 방법으로 객관적으로 貧困線을 測定해보고자 하는 시도가 행해져 왔다. 이러한 시도는 비판받기는 했으나 사실상 基本必要나 社會的 合意와는 다른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으며 나름대로 중요한 공헌을 하고 있다¹²⁾.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같은 자료로 이러한 방법들을 검토하고 각 방법들에서 설정된 빈곤선의 타당성 여부를 상호대조한 연구는 없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測定方法에 따라 빈곤을 5가지로 분류하고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가능한 모든 統計解釋的方法과 客觀的方法으로 貧困線을 測定하고 각 方法으로 설정 가능한 모든 빈곤선을 찾아보고 산출된 결과들을 비교하는 과정을 거쳐 韓國都市社會의 相對的 貧困線을 설정하고자 한다.

II. 理論的 背景

1. 先行研究의 貧困分類

선행研究의 貧困線과 貧困線 算出의 基本이 되는 최저생계비는 아래의 <표 1>의 이기춘¹³⁾, 이두호의¹⁴⁾, 이준구¹⁵⁾, 이정우¹⁶⁾와 허선¹⁷⁾의 연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理論的 生計費와 實態的 生計費로 분류되어 왔으며 마켓바스켓方法(全物量方法)과 半物量方法(엔겔계수方法)을 理論的 生計費 推定方法으로 實態 調查資料를 사용하여 統計的으로 貧困線을 도출하는 方法을 實態的 生計費 推定方法으로 간주되었다. 또한 위의 方法들을 객관적 貧困線 산출方法으로, 일반사람들의 主觀的 評價에 기초하여 貧困線을 도출하는 方法을 주관적 貧困線 산출方法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 기준은 빈곤을 理論的 生計費와 實態的 生計費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라운트리의 研究에 있어서 식료품비의 設定에 과학적으로 산출된 營養必要量이 勞動科學

12) Piachaud, "Problems in the Definition and Measurement of Poverty", *Journal of Social Policy*, Vol. 16, No. 2, 1987

13) 이기춘, 가정경제학, 교문사, 1991, pp.72-73

14) 이두호의, 빈곤론, 나남, 1991, pp.44-58

15) 이준구, 소득분배의이론과 현실, 다산출판사, 1992, pp.298-320

16) 이정우, 소득분배론, 비봉출판사, 1991, pp.250-263

17) 허선, "한국 빈곤선 측정의 동향과 과제", 빈곤이론 빈곤정책,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1992, pp.217-232

과 生活科學 理論에 기초하여 적용되었을 뿐 식료품비를 제외한 다른 品目の 마켓 바스켓 구성에 生活實態 調査자료가 이용되었으며 그 밖의 모든 후속 研究에도 實態調査자료가 이용되었다. 사실, 어느 研究者도 實態調査에 근거하지 않고는 必需品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수 많은 品目과 각 品目の 量과 質의 규정과 價格의 算出이 불가능하다. 이와 같이 전물량방법도 실태조사 자료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理論的 生計費라고 부르는 것은 무리이다. 또한 반물량方法에 있어서도 필요한 營養의 攝取 基準은 理論的으로 산출된다고 하더라도 산출된 營養必要量의 섭취를 위한 食品의 選定과 食料品費의 산출에는 특정시대와 사회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食品과 물가에 대한 實態調査 자료에 근거하여 산출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生計費는 理論的으로 산출되어질 성격의 것이 아니므로 貧困을 理論的 生計費와 實態的 生計費로 나누어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¹⁸⁾ 마켓바스켓 方法은 實態調査에 근거하더라도 必需品를 규정하고 규정된 必需品의 量과 質을 정하는 데 있어서 研究者의 規範적 가치의식에 따른 판단의 작용 폭이 다른 方法들보다 크므로 規範的 接近方法으로 간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표 1> 선행연구의 빈곤분류

이기춘	이두호의	이준구	이정우	허선
이론적생계비	절대적빈곤	객관적빈곤	절대적 빈곤	전물량방식
전물량방식 앵겔방식(반 물량방식)	기본적 욕구방법 음식비 비율방법	기본필요에 입각한 빈곤선	라운트리방법 앵겔방법	반물량방식
실태적생계비	상대적 빈곤 평균 혹은 중위 소득의 비율 소득분배상의 일정비율 타운젠드방법 주관적 빈곤	식품비 비중에 의 한 빈곤선 유사상대빈곤선 순수상대빈곤선 주관적 빈곤선 제3자적 평가 자신에 대한 평가	상대적 빈곤 순수상대빈곤 유사상대빈곤 상대적박탈 주관적 빈곤	통계해석방식 순수상대빈곤 유사상대빈곤 전환점분석방식 사회적합의방식 소득대리방식 박탈지표방식

이준구는 일반인들에게 主觀的 貧困線을 물어서 貧困線을 도출하는 方法은 主觀的 貧困으로 분류하고 나머지 方法은 모두 客觀的 方法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논의하였듯이 마켓바스켓방법에는 研究者의 主觀的 規範意識이 많이 작용

18) 본 연구자가 검토한 유럽이나 미국의 논문에는 어디에서도 이론적 생계비라는 표현이 없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이 용어를 쓰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는 듯하다.

하고 있으며, 剝奪指標方法에 있어서도 지표의 구성에 研究者의 主觀的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고, 이 점을 배제시키는 과정에서 일반인들의 必需品 여부에 대한 主觀的 見解를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통계해석 方法에 있어서도 平均所得의 一定 比率의 設定에 研究者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으며 半物量方法에 있어서도 Engel계수의 특정 비율의 設定에 研究者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또한 라이덴방법이나 所得代理方法도 與論調査 結果를 통계적 方法으로 해석하고 客觀化시키는 과정을 거치므로 엄밀한 의미에서는 主觀的 方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진정한 客觀的 貧困은 統計結果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貧困線을 추정하는 消費函數法, 알렌-보울리法, 轉換點分析法和 赤子-黑子轉換點 뿐이다.

타운센드의 상대적 박탈지표 방법을 이두호는 상대적 빈곤의 범주 속에 포함시켰으나 이정우는 따로 분류하였다. 상대적 빈곤과 상대적 박탈의 근본적인 차이는 불평등을 缺乏이나 格差로 보느냐 剝奪로 보느냐의 차이와 개념범위를 경제적 자원에 국한시키느냐 사회문화적 생활양식에의 참여로 넓히느냐에 있다¹⁹⁾. 타운센드의 박탈지표에는 경제계의 박탈이외에도 취업할 권리, 가족활동, 지역사회에의 통합, 사회기관에의 공식적 참가, 오락, 교육의 6개 사회적 박탈의 하위범주가 포함되어 있다²⁰⁾. 타운센드의 指標 구성에는 사회적 합의보다는 自身の 規範的 見解를 고집한 항목도 몇 개 있어서 많은 비판을 받았으나²¹⁾ 다른 대부분의 品目은 사회적 합의를 얻었다. 그리고 앞으로의 研究에 있어서도 사회적 합의를 얻은 品目으로 剝奪指標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허선은 社會的合意方法에 포함시킨 것 같다. 그러나 박탈은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빈곤과 개념 자체가 상이하 며 측정 에 있어서도 사회문화적 생활양식에의 참여라는 비물리적인 요소들의 측정이 포함되기 때문에 측정 가능한 경제적 자원에 국한시켜 생활수준의 상대적 차이를 살펴보는 상대적 빈곤과는 다른 차원이다. 따라서 相對的 剝奪은 상대적 빈곤에 포함시키기보다는 따로 떼어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맥과 랜슬리²²⁾는 타운센드의 박탈지표가 專門家의 견해나 관찰된 소비유형에 의하여 작성되었기 때문에 研究者의 自意性이 개입되어 있다고 비판하고 “일반인들이 사회적 필수품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일반인 자신보다 누가 더 잘 알 수 있는가?”라고 하였다. 그리고 일반인들에게 박탈을 피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품에 대한 견해를 구하여 ‘누구나 購買할 능력이 있고 꼭 필요한’ 14개 항목을 찾아내어 그 항목들을 기준으로 貧困線을 도출하였으며 이 지표들은 순전

19) 박명희와 류정순, “빈곤가계의 복지지원을 위한 빈곤선설정의 이론적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Vol. 33, No. 5, 1995 pp.63-73

20) Townsend, P. "deprivation", Journal of Social Policy, Vol. 16, No.2, 1987 pp. 141-144

21) Sen, A. K., "Poor Relatively Speaking", Oxford EconomicPapers, 1983

22) Mack, J. & Lansely, S. Poor Britain, GeorgeAllen andUnwin, London

히 經濟財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 방법은 타운센드의 박탈지표 방법보다는 社會的合議 방법의 범주에 넣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總所得 중 食料品費가 차지하는 構成 比率을 基準으로 貧困을 定義하는 方法은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자들에 따라 英鎊방식, 英鎊계수방식, 食品물 비율방법, 식품비의 비중에 의한 빈곤선 측정방식, 등의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方法은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全消費支出 중 食料品費가 차지하는 比率인 英鎊계수가 낮아진다는 英鎊의 제1법칙에 기초한다. 食品에 대해서는 比較的 科學적이고 客觀的인 基準을 設定할 수 있으므로 생계비의 일부분을 차지하는 最低食料品費는 營養학자가 계산한 기준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반물량방식으로 불리우기도 한다. 그러나 식품비의 비율이 반이 못되므로 日賦物量方式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英鎊계수를 기준으로 빈곤선을 산출하는 방법은 1963년 울산스키에 의하여 제안되었는데, 이 방법의 빈곤선은 최저식품비 정도를 소비하는 계층의 英鎊계수를 산출하여 英鎊계수의 逆數를 곱하여 산출한다. 英鎊계수를 이용한 빈곤선의 설정방법은 이외에도 최저식품비 정도를 지출하는 가계의 소득이나 소비를 빈곤선으로 삼는 방법과 빈곤층이라고 규정된 계층의 음식비에 빈곤층의 英鎊계수의 역을 곱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미국의 社會保障廳은 英鎊계수 方法을 변형하여 1961년부터 현재까지 똑같은 英鎊계수 33%선으로 고정시켜 公式的 貧困線을 設定하고 있다. 따라서 이 방법은 변형된 英鎊계수 산출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방법 중에서 최저식품비를 지출하는 가구의 英鎊계수의 逆數를 곱하는 방법과 최저식품비 정도를 지출하는 가계의 소득이나 소비를 빈곤선으로 삼는 방법에는 최저식품비의 설정을 위한 식품의 종류와 양과 질을 정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규범적 접근방법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2. 本考의 貧困分類

앞절에서의 논의에 근거하여 본고에서는 測定에 연구자의 규범적 意識이 개입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여러사람들의 합의를 얻는가, 통계결과를 해석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순전히 통계결과를 그대로 빈곤선으로 삼는가를 기준으로 빈곤선을 1) 實態調査資料에 근거하더라도 必需品를 규정하고 규정된 必需品의 양과 질을 정하는 과정에서 研究者의 규범적 가치意識에 따른 판단의 작용 폭이 比較的 크게 나타나는 規範的 接近 方法(라운트리方法); 2) 必需品 與否를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물어보아 與論 調査로부터 必需品 與否와 必需品의 基準을 導出하거나, 貧困線이 얼마인가를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물어보아 그들의 主觀的인 評價를 토대로 貧困線

을 도출하는 合意的 接近方法; 3) 家計調查 資料를 토대로 統計的 方法으로 산출된 資料를 재해석하여 적합한 지점이라고 판단되는 지점을 貧困線으로 간주하는 統計解釋的 接近方法, 4) 家計調查 資料에 근거하여 통계적 方法으로 貧困線을 도출하는 客觀的 接近 方法 및 5) 박탈지표方法의 5가지로 분류하고자 한다.

3. 貧困理論

각 接近方法들의 貧困線 測定方法에 대하여 간단히 고찰하면 아래와 같다.

1) 規範的 接近 方法

(1) 마켓바스켓方法(全物量方法)

이 方法은 라운트리方法이라고도 불리우는데, 研究者가 規정한 最低生存水準의 維持에 필요한 각각의 세분된 支出品目的 必需品과 所要量을 定하고 이에 시장가 격을 곱한 후, 합계를 구하는 方法으로 계산해낸 最低生計費에 家計所得이 미달하는 경우 貧困한 것으로 간주했다. 올산스키²³⁾가 간파한 바와 같이 빈곤은 美와 마찬가지로 보는 사람의 가치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이 方法은 生存의 概念과 基本 必要의 規정과 必需品 및 必需品의 量, 質과 價格의 選定 基準에 研究者의 規範的 意識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바이트 윌슨²⁴⁾은 研究者들이 지난 가치意識이 적용되어 최저기준이 산출되는 마켓바스켓 方法을 規範的 接近法이라고 했다.

(2) 최저식품비 기준방법

① 最低食品費 지출가구의 平均 恩給계수의 역수를 곱하는 方法

이 方法은 전문가에 의하여 산출된 최저식품비 정도를 소비하는 계층의 恩給계수를 산출하고 이 값의 逆數를 곱하여 貧困線을 산출하는 方法이다. 그러나 최저식품비의 산출 근거가 되는 최저 영양섭취에 필요한 식품의 종류, 양 및 질의 설정에 研究者의 規範的 意識이 개입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貧困階層의 規程이 거의 전적으로 최저식품비에 의존하여 산출되는 문제점이 있다.

② 最低食品費 支出 家口의 所得(消費)을 貧困線으로 삼는 방법

이 방법은 최저식품비를 지출하는 水準에 상응하는 계층을 구하고 그 계층의

23) Orshansky, M., "how Poverty is Measured", Monthly Labor Review, Feb., 1969

24) Veit-Wilson, 전계서

실제 所得이나 消費支出을 貧困線으로 삼는다. 이 方法은 英鎊계수法의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貧困線이 食料品費에 너무 민감하다는 問題점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 있다. 또한 이 方法에서는 食品 이외의 品目에 대해서는 전물량方法의 問題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전문가의 자의성이 어느 정도 배제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 合意的 接近 方法(consensual approach)

마켓바스켓方法에 있어서 研究者의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問題點을 극복하기 위하여 社會調査方法을 이용하여 일반인들이 厚生狀態에 관하여 가지는 主觀的 評價에 기초하여 貧困을 정의하려는 方法이 반프라그(van Praag), 하게나스(Hagenaars), 괴다트(Goedhart) 등에 의해 개발되었다. 이 方法이 총론적 접근법이라면 각각의 생활필수품에 대하여 일반인들이 가지는 견해를 묻는 各론적인 方法이 시도되었다. 맥과 랜슬리²⁵⁾는 剝奪指標²⁶⁾의 구성을 위하여 “오늘날 영국에서 最小限의 基準을 구성하는 것(必需品)에 대해 어느 정도 社會적 합의가 존재하는가”를 일반인들에게 물어보아 ‘필수적이고 누구나 購買할 능력이 있고 꼭 필요한’ 항목들에 대하여 經驗的 貧困線을 도출하였으며 이와 같이 輿論調査로부터 貧困線이나 필수품의 종류, 양과 질을 도출하는 方法을 合意的 接近이라고 했다. 이 方法들은 貧困線 設定에 대중의 견해가 반영되기 때문에 政治적 신뢰성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合意的 接近法은 총체적으로 所得을 다른 사항에 대한 대응으로 사용하여 얼마 이하의 所得이면 貧困한 것으로 생각하는가를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所得代理方法²⁷⁾과 개별 品目の 必需品 여부에 社會적 합의를 구하는 貧困指標 方法의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所得代理方法(income proxy method)

이 方法은 여러 가지로 測定되고 있으나 가장 대표적인 方法은 第3者的 評價方法과 自身에 대한 評價方法(Leyden方法)이라고 할 수 있다.

① 第3者的 評價方法

제3者的 評價方法은 여러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속한 특정사회에서 대표적인 家計(예를 들어 부모와 2자녀 家計)가 빠듯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最小限의 돈은 얼마인가?”를 물어보아, 그 답을 平均하여 貧困線으로 보는 方法이다. 이 方法은 絶

25) Mack & Lansley, 전계서

26) 맥과 랜슬리는 박탈지표라고 했으나 여기에는 경제재 만이 포함되었으므로 엄격한 의미에서는 박탈지표라기보다는 빈곤지표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27) 소득대리방식(income proxy method)이라는 용어는 바이트 윌슨(Veit-Wilson, 1987)이 지칭하였다.

對的 貧困이나 相對的 貧困의 概念을 포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理論的으로 보다 큰 타당성을 가진다고 研究者들은 주장한다. 또한 이 方法은 사회구성원들이 일반적으로 간주하는 貧困線이 어디인가를 알아낼 수 있어서 사회의 현실을 상당히 반영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政策的 適用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응답자 본인 개인의 상황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상황에 대한 막연한 질문의 응답을 요구하기 때문에 응답에 본인 개인의 상황을 물었을 때 고려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이 포함 안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② 自身에 대한 評價 方法(라이덴方法)

제3자적 評價方法의 이러한 단점을 解決하기 위해 개발된 方法이 자신에 대한 評價方法으로서 괴다트²⁸⁾ 등의 라이덴(Leyden) 대학의 학자들이 이 개발했기 때문에 라이덴방법이라고 불리우기도 한다. 이 方法에서의 貧困線은 먼저 사람들에게 "현재 당신 가족이 처한 상황에서, '빠듯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最少所得은 얼마라고 생각합니까?"라고 묻고 이를 바탕으로 사람들이 판단한 最少所得과 그들의 實際所得이 일치하는 점을 회귀분석을 통하여 추정하므로써 貧困線을 도출한다. 이 方法은 일반적으로 개인들의 實際所得이 높아지면 主觀的으로 판단된 最低所得도 높아진다는 점을 바탕으로 한다. 이러한 전제 아래에서는 어떤 所得水準 이상에서는 개인들의 實際所得이 그들의 主觀的인 最低所得보다 높고, 그 이하에서는 반대로 主觀的인 最低所得이 實際所得보다 높게 된다. 여기서 實際所得과 最低所得이 교차하는 점이 바로 貧困線이 된다.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主觀的 貧困線 推定方法이라고 알려진 라이덴方法에 있어서도 實際所得과 貧困線이 교차하는 점을 함수관계를 가정하고 찾기 때문에 客觀的方法이 동원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접근법이 가지는 長點은 각자의 境界의 狀況에 대한 가장 좋은 판단자라 할 수 있는 사회 일반인 자신들의 評價에 기초한 實證的 結果에 의거하여 貧困이 정의된다는 점, 단 한가지의 질문과 그 분석만으로도 貧困을 정의할 수 있다는 편리함과 상이한 가족구성에 대해서 쉽게 均等化指數(equivalence scales)를 계산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方法의 問題點은 일반인들은 대개 '最少所得'의 응답에 耐久財 購買를 위한 저축을 누락시키고, 自家 所有者나 傳貰사는 사람들이 귀속임대료를 고려하지 않은 生計費를 대담하며, 큰 병이 날 확률을 과소평가하여 건강할 때 필요한 醫療費 정도로 응답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 方法에 의한 最低生計費 추정은 과소 평가될 위험성이 있으며 실제로 1970년대 중반의 네델란드의 조사 結果 貧困線이 公式的인 貧困線보다 낮았다.²⁹⁾

28) Goedhart et. al., "The Poverty Line: Concept and Measurement", Journal of Human Resources, 1977

29) Veit-Wilson, 전계서

(2) 貧困指標方法(Mack and Lansely 방법)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 방법은 타운센드의 박탈지표 방법이 가지는 치명적인 문제인 필수품 여부의 판정에 연구자의 가치와 규범의식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輿論調査로부터 필수품의 종류, 양과 질을 도출하여 貧困指標를 구성한 후 소득이 얼마 만큼 높아졌을 때 생활수준이 갑자기 높아져 필수품을 구매할 수 없을 정도의 궁핍을 면한다고 할 수 있는 지점인 빈곤경계선이 나타나며 이 지점을 貧困線으로 간주하는 方法이다. 이 방법에 있어서도 박탈지표 방법에서와 마찬가지로 과연 빈곤경계선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3) 剝奪指標 方法

相對的 剝奪方法은 사회구성원을 대표할 만한 標本의 생활양식을 조사한 후 所得의 一定水準 이하에서 生活樣式에의 참여가 급격히 떨어지는 剝奪境界線을 찾아낸 후 이 線 이하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을 貧困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方法은 삶의 質的인 측면까지 포함된 實際 生活 내용이 반영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方法은 所得과 剝奪 사이의 관계가 연속적인 관계인지 아니면 타운센드가 가정하듯이 어느 점에서 변화가 확연히 드러나는 빈곤경계선(poverty threshold)이 존재하는지가 불명확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또한 資源 부족 때문이 아니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消費하거나 참여하지 않아도 剝奪된 것으로 간주되는 모순이 있어서 選好의 問題를 解決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是은 相對的 剝奪은 主觀的 剝奪感과 결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剝奪을 狀態로 客觀的으로 해석한 데 대해 의의를 제기했다.

4) 統計解釋的 接近方法

이 方法은 사회구성원을 대표할 만한 표本의 소득이나 소비내용을 사회조사를 통하여 파악한 후 평균값, 중앙값, 혹은 최빈값을 基準으로 일정 수준 이하를 빈곤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方法은 實態調査에 근거한 통계자료를 이용하나 특정 貧困線의 設定에 研究者의 主觀的 價値가 개입되기 때문에 과학적인 方法에 規範的 解釋을 걸드린 方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方法에는 純粹相對貧困方法, 類似相對貧困方法과 英겔계수방법이 있다.

(1) 純粹相對貧困方法

純粹相對貧困은 相對的 貧困을 測定하는 여러 方法들 가운데 가장 相對的인 측면을 강조하여, 不平等 그 자체를 바탕으로 하여 貧困線을 設定한다. 이 견해에서 階層別 所得分配上의 下位 一定比率을 貧困으로 정의한다. 이 方法은 간단하

여 이용이 용이하고 階層간의 相對的 不平等의 척도로서 유용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특정 階層의 設定이 자의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2) 類似相對貧困方法

이 方法은 평균소득이나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貧困線으로 간주하는 方法이다. 타운센트는 전체 平均所得의 80%를, 폭스는 中位所得의 1/2를 貧困線으로 제안하고 있으며 세계은행은 開發國의 相對貧困線으로 平均所得의 1/3을 貧困線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 견해는 絶對的 貧困概念보다 客觀的인 基準을 좀더 뚜렷하게 밝히고 있으며 산출이 간단한 장점이 있으나 平均(中位)所得의 특정 비율의 선택이 자의적이라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예컨대, 하필이면 왜 50%이냐에 대한 客觀的 根據가 미약하다. 이 方法에서는 純粹相對貧困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족수의 변화에 따른 貧困線의 조정이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타운센트는 여러가족 형태의 서로 다른 平均所得을 계산해서 家族員數別 貧困線을 設定하였으며 랜슬리는 家族 所得을 一人당 所得으로 바꾸어 貧困線을 계산하기도 했다.

5) 客觀的 接近 方法

이 方法은 實態調查 자료에 근거한 統計的 方法으로 貧困을 산출하는 方法으로서 研究者의 主觀的 解釋의 여지가 전혀 없다. 이 方法에는 消費函數法, 알렌-보울리(Allen Bowley)법, 赤字-黑字 分岐點 分析法과 轉換回歸 模型(Switching Regression Model)이 있다. 이 方法은 短期에 있어서 소득의 增加와 더불어 平均消費性向이 減少한다는 케인즈의 絶對所得假說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家計의 所得과 消費 간의 직선 관계에의 타당성 여부가 解決해야 할 난점이다.

(1) 所得消費函數法의 貧困線

케인즈의 絶對所得 가설에 의한 소비함수의 성격을 이용하여 消費를 所得의 線形函數로 가정하고 所得이 없을 때도 최소한의 消費를 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에서 소득이 0일 때의 消費水準인 消費函數의 절편을 貧困線으로 간주한다.

(2) 赤字-黑字 分岐點 分析法의 貧困線

家計의 消費支出 관리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면, 극심한 貧困상태에 있는 家計는 赤字를 면치 못하지만 所得의 增加와 더불어 赤字額은 차차 줄어들어 어느 시점에 이르면 所得의 전부를 消費하는 分岐點이 생기게 된다. 家計調查資料를 근거로 이 지점을 찾아내어 貧困線으로 삼는 方法이다.

(3) 알렌-보울리법의 貧困線

이 방법은 消費函數에서 所得이 0일 때의 $C = a + bY$ 의 식에서 $C > 0$ 인 비목 즉, 소득이 없을때도 소비하는 비목을 사치품으로 간주하고 사치품목으로 나타난 모든 변수들을 더하여 새 변수를 만든 후 이 변수의 消費函數를 추정하여 消費가 0이 되는 所得水準을 찾아내어 貧困線으로 정하는 方法이다. 이 方法은 사치 품목에 해당되는 비목을 어디까지 국한시킬 것이냐 하는 問題가 있다³⁰⁾.

(4) 전환회귀모형(Switching Regression Model)方法의 貧困線

이 方法은 貧困線은 연속적인 복지척도상의 특정한 지점에 상응하는 소득수준 이라기 보다는 어떤 소득수준에서 생활수준이 갑자기 높아지는 빈곤경계선이 있어서 그 지점을 빈곤선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가설에 기초한다. 이 방법에서는 모든 지점에 대하여 그 지점 아래와 그 지점 위의 2개의 소비함수식을 산출한 후, 2개의 소비함수식의 기울기(한계소비성향)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지점의 소득을 貧困境界線으로 간주하는 方法이다. 그러나 이 方法에 있어서도 R^2 값이 얼마 이상일 때 선형관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인가, 限界消費性向이 얼마 이상 차이가 날 때 貧困境界線으로 간주하는 것이 유의하다고 할 수 있느냐, 境界線이 너무 높거나 낮은 지점에서 나타날 때 이 지점을 생활수준의 경계선이라고 할 수는 있느냐, 貧困境界線이라고 할 수 있느냐, 등의 問題가 있다.

III. 研究資料 및 方法

본고는 통계청의 1993년 都市家計調査 資料 중에서 4인 도시근로자 15,890가구의 소득, 소비 및 식품비 지출자료를 이용하여 빈곤선을 산출하고자 한다. 이 자료는 매년 전국의 24개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層化 및 確率比例 系統抽出方法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1년 동안 지속적으로 가계부를 기록케한 후 얻는다. 또한 3段階 最低食品費는 식품영양학자인 박혜련이 산출한 자료를 이용하였다.³¹⁾

연구방법은 SAS package를 이용하여 빈도, 20분위 계층별 평균소득을 산출하고 赤字-黑字 轉換點, 消費函數法, 앙겔계수법, 알렌-보울리법, 등의 貧困線을 추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LIMDEP Package를 이용하여 전환회귀모형(Switching

30) 본 연구에서 산출한 바에 의하면 11대 대분류 비목 중에서 사치재는 가구집기-가사용품이 유일하였다. 그러나 43개 중분류 비목 중에는 의의, 기타비소비지출, 등의 몇 가지 품목에 사치재가 더 있었으나 대체로 함수의 설명력이 낮아서 선형관계의 가정 자체에 무리가 있었다. 여기서 R^2 값이 얼마 이상일 때 선형관계가 성립된다고 보느냐에 따라 빈곤선은 달라질 수 있다.

31) 류정순, 전계서 pp. 101-111

Regression Model)方法의 貧困線을 추정하고자 한다.

IV. 研究結果 및 論議

1. 客觀的 方法의 貧困線 推定結果

1) 所得消費函數法의 貧困線

케인즈의 絶對所得假說에 기초한 所得消費函數를 구해본 結果 소득소비함수는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Y = 0.464736X + 288,871$ 이었다. 이 消費函數의 절편 값 288,871원은 所得이 없을 때에도 꼭 消費해야만 하는 必需品으로 해석되므로 所得消費函數法의 貧困線은 288,871원이다. 장현준³²⁾이 1984년 도시가계조사 자료로 산출한 전체 근로자 가구의 貧困線은 146,156원³³⁾이었는데 이러한 격차는 주로 그동안의 경제발전으로 인한 소득수준의 향상에 기인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1994년 保社研에서 하위 30% 상하계층 600가구를 標本으로 하여 所得消費函數法으로 추정한 일인당 최저생계비는 15만원 정도로서 이 값을 가계균등화지수(0.309 : 1)를 이용하여 4인가족으로 換算하면 456,904원³⁴⁾으로서 본고에서 추정된 값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보사연의 표본은 하위 30% 계층이기 때문에 사실상 소득이 없으면서도 소비를 해야하는 절박한 계층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최하위 계층에서 최상위 계층이 모두 포함된 본고의 결과와는 다르게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참고로 각 비목별 所得消費函數를 추정한 결과를 제시하면 아래의 <표 2>와 같다.

2) 赤字-黑字 分岐點 分析法의 貧困線

전체 표본을 소득이 가장 높은 가구부터 가장 낮은 가구까지 서열화 시킨 후 각 5%에 해당하는 가구를 기준으로 20개 계층으로 나눈 후 각 계층의 평균소득과 소비를 구해본 결과는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다. 1/20분위 階層에서 평균소득은 406,768원이었으나 평균소비지출은 571,177원으로서 赤字家計를 운영하고 있으나 2/20분위 계층은 평균소득이 688,913원으로서 평균소비지출인 602,108원보다 높아 흑자를 黑字를 기록하고 있다. 다른 모든 계층도 흑자를 보였으므로 赤字에서 黑字로 전환하는 지점은 1/20분위와 2/20분위 사이이다. 두 분위 사이를 선형 관계로 가정하고 보간법을 이용하여 所得線과 消費線이 교차하는 지점을 계산하였더니 591,420원이었다. 그러므로 貧困線 赤字-黑字 分岐點 分析法의 貧困線은

32) 장현준, 전거서

33) 1984년의 빈곤선 90,071.4원을 1993년의 물가로 환산한 액수이다.

34) 1994년의 485,437원을 1993년 물가로 환산한 액수이다.

591,420원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 所得消費函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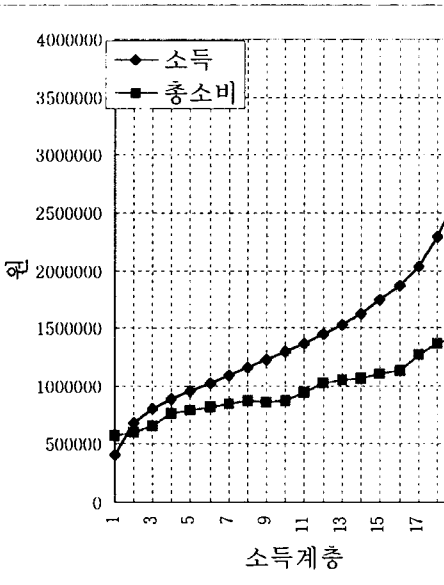
비 목	소득/소비함수	R2	D-W
소비지출	$Y = 0.464736X + 288,871$	0.2377	1.332
식료품	$Y = 0.077472X + 176,019$	0.1564	1.224
주거비	$Y = 0.114845X + 139,632$	0.0815	0.596
광열수도비	$Y = 0.006919X + 32,025$	0.0262	1.333
가구집기			
가사용품비	$Y = 0.040094X - 8,919.4$	0.0295	1.591
피복신발비	$Y = 0.035018X + 24,986$	0.0814	1,383
보건의료비	$Y = 0.017121X + 28,696$	0,0130	1,369
교육교양오락비	$Y = 0.064774X + 49,810$	0,0523	1,388
교통통신비	$Y = 0.06874X + 2,661$	0,0135	1,385
기타소비지출	$Y = 0.109153X + 29,978$	0,2091	1,228
잡비	$Y = 0.09713X + 7,115$	0,2144	1,097

* t값은 모두 0.001 수준에서 유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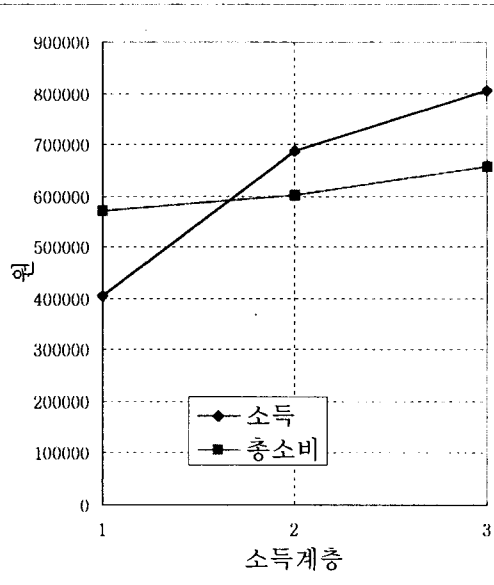
3) 알렌-보울리법의 貧困線

10대 家計消費支出費目(食品, 住居, 광열수도, 가구집기-가사용품, 피복신발, 보건의료, 교육, 교양오락, 교통통신, 기타 消費支出) 중에서 所得이 0일때 消費支出이 부(-)의 값을 보이는 品目 즉, 사치재는 가구집기-가사용품 한 品目 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이 方法에 의한 貧困線은 사치품이라고 할 수 있는 가구집기-가사용품목의 消費가 0이 되는 지점의 所得이 貧困線이 된다. 가구집기가사용품비의 소득소비함수는 $Y = 0.040094X - 8,919.4$ 이므로 이 식에서 가구집기 가사용품비(Y)의 소비지출이 0이 되는 지점의 소득(X)은 222,462원이다. 장현준(1986)의 1984년 都市家計조사 자료 분석 결과에 의하면 9대 가계지출 비목 중에서 사치재는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의 소득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소비성향이 늘어난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표 3> 20분위 소득계층별 소득과 총소비



<표 4> 적자-흑자 분기점



4) 轉換回歸模型(Switching Regression Model)方法의 貧困線

Green(1989)에 의해 개발된 LIMDEP Package를 이용하여 만원 단위로 所得水準을 나누어 각 所得水準 전후의 所得에 대하여 최우도 추정(maximum likelihood estimates) 方法으로 어느 특정 지점을 基準으로 그 아래와 그 위의 두 개의 函數의 限界消費性向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지점을 추정하였다. 배연숙,한재숙,김정숙³⁵⁾의 研究에 의하면 소비함수는 선형이 가장 설명력이 높으므로 선형의 형태를 취하였다. 분석結果 아래와 같이 식1의 한계소비성향이 1.3975이고 식2의 한계소비성향³⁶⁾이 0.43313일 때 차이가 0.96437로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식1: $Y = 1.3975X + 99,864$ (R2 0.6053, log-likelihood 0.28711)

식2: $Y = 0.43313X + 346,300$ (R2 0.6053, log-likelihood 0.2338)

(t값은 모두 0.00015 수준에서 유의함)

SAS Package를 이용하여 두 식을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지점 즉, 전환소득점

35) 배연숙, 한재숙과 김정숙, “가계분석에 있어서 Engel Curve의 함수형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28권4호, 1990

36) 한계소비성향은 소비함수의 기울기로서 기울기가 0.43313이라면 소득이 100원 늘 때 소비를 43원 31전 늘인다는 것을 뜻한다.

을 찾아본 결과 所得이 667,240원 인 지점에서 두 식의 消費支出이 거의 일치하였다. 그러므로 貧困境界線은 667,240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값은 보사연³⁷⁾의 研究結果인 749,213원과 중소도시 715,329원보다 약간 적다.³⁸⁾ 이 정도의 차이는 표본의 차이와 1년 동안의 소득수준의 향상을 감안할 때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2. 統計解釋方法의 貧困線 設定

1) 類似相對貧困 方法의 貧困線

조사대상가구의 평균소득은 1,499,916원, 중위소득은 1,308,000원, 최빈소득은 1,000,000원으로 소득분포는 고소득이 매우 넓은 범위에 흩어져 있는 대수정규분포(lognormal distribution) 형태를 띠고 있어서 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이나 최빈소득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Std. Dev. 6,978.296). 평균소득, 중위소득과 소비지출과 각 값의 일정 비율은 아래의 <표 5>와 같다.

2) 純粹相對貧困方法의 貧困線

한 家計의 經濟的 豊饒(economic well-being)의 정도는 크게 所得, 消費支出 그리고 資産으로 측정 가능하며 이 세 가지 가운데 所得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家計는 저축이나 차용의 방법으로 資産이나 과거의 生活상태와 미래의 所得의 흐름에 대한 예측에 기초하여 所得을 재배분하기 때문에 현재 所得보다는 生涯 週期 전체의 所得에 대한 예측이 반영된 消費가 더 家計의 經濟的 能力을 잘 나타내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所得은 주로 현금 所得만을 포함시키는 경향이 있고, 現物 所得이나 資本 利得(capital gain), 歸屬 賃賃料(imputed rent) 등이 제외되며, 所得(특히 資産所得)은 낮게 보고되는 경향이 있고 資産의 영향력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짧은 기간의 所得만으로는 家計의 經濟的인 能力(economic capacity)을 잘못 나타낼 수 있으므로 消費支出이 더 바람직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가계의 저축율이 30%를 운들기 때문에 所得階層과 消費階層別 家計 所得이나 支出은 상이한 값을 보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所得基準과 消費支出을 基準 두가지로 전 표본을 서열화시킨 후 20분위 階層으로 나누어 각 계층의 平均所得과 平均消費支出을 산출하여 계층분류의 기준으로 삼았다. 所得基準과 消費基準의 階層別 平均所得과 平均消費支出은 <표 6>과 같다. 소득을 기준으로 계층을 나누었을 때는 소득을, 그리고 소비를 기준으로 계층을 나누었을 때는 소비를 기준으로 빈곤선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

37) 최저생계비 계층조사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pp. 236-248

38) 이 액수는 1994년의 대도시 796,000원과 중소도시 760,000원을 1993년 물가수준으로 환산한 것이다.

직하다.

<표 5> 類似相對貧困 方法의 貧困線 (단위: 원)

퍼센티지	평균소득	중위소득	소비지출
100	1,500,858	1,308,000	1,010,176
80	1,200,686	1,046,400	808,141
75	1,125,644	981,000	757,632
70	1,050,601	915,600	707,123
66.7	1,001,072	872,000	673,383
60	900,515	784,800	606,106
50	750,429	654,000	505,088
40	600,343	523,200	404,074
33.3	500,286	436,000	333,358
30	450,257	392,400	303,053

<표 6> 所得基準과 消費基準의 階層別 平均所得과 平均消費支出 (단위: 원)

	소득계층		소비계층	
	평균소득	평균소비	평균소득	평균소비
하위 0-5%(1/20분위)계층	406,768	571,177	831,186	325,588
하위 10-15%(3/20분위)계층	805,200	657,953	1,034,544	503,053
하위 20-25%(5/20분위)계층	960,436	790,623	1,169,071	603,657
하위 30-35%(7/20분위)계층	1,096,819	852,625	1,247,393	694,509
하위 40-45%(9/20분위)계층	1,229,308	853,840	1,360,899	782,679

3) 엔겔계수의 逆數를 곱하는 方法의 貧困線

박혜련은 식품의 가치수와 양 및 질에 따라 3단계 최저식품비를 산출하였는데 첫째, 절약식단으로 절대빈곤선상의 최저식품비를 산출하고 둘째, 최하위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1/20분위인 하위 0%-5% 사이에 있는 가계의 실제 섭취식품의 가치수와 질을 기준으로 삼고 영양권장량과 비교하여 모자라는 영양소를 같은 식품으로 보충하는 방법으로 하한상대빈곤선상의 가계의 최저식품비를 산출했으며 셋째, 7/20분위인 하위 30-35%계층의 실제 섭취 식품의 가치수와 질을 기준으로 삼고 영양권장량과 비교하여 모자라는 영양소를 같은 식품으로 보충하는 방법으로 상대빈곤선상의 최저식품비를 산출하였다. 3단계 최저식품비와 엔겔계수 45%(1/20분위의 엔겔계수), 40%(3/20분위의 엔겔계수), 35%(8/20분위의 엔겔계수)와 33.3%(12/20분위의 엔겔계수) 일 때의 빈곤선은 <표 7>과 같다.

<표 7> 앵겔계수법의 貧困線

(단위: 원)

	최저식품비	45%기준의 빈곤선	40%기준의 빈곤선	35%기준의 빈곤선	33.3%기준의 빈곤선
절약식단	211,356	469,680	528,390	603,874	634,703
1/20분위계층의 실제섭취 식품기준	249,695	554,878	624,238	713,414	749,835
7/20분위계층의 실제 섭취식품기준	295,490	656,644	738,725	844,257	887,357

3. 客觀的 接近方法과 統計解釋的 接近方法으로 算出된 貧困線들의 比較

위에서 산출된 통계해석적 접근법과 객관적 접근법으로 산출된 貧困線을 比較하면 <표 8>과 같다.

4. 相對的 貧困線의 設定

절대빈곤개념의 빈곤선은 통계적 방법으로 설정될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논의로 하고 각 방법으로 산출된 빈곤선의 타당성 여부를 상호대조한 후 相對的 貧困線을 설정 했다. 표준생계비(standard budget)는 배무기외(전계서)와 통계청에서는 최빈값을 기준으로 산출했으나 조우현³⁹⁾은 최빈값보다는 중앙값이 표준생계비 산출의 기본으로 더 적합하다고 했으며, 미국노동통계청(The Bureau of Labor Statistics) 또한 부부와 2자녀로 구성된 가계의 中位消費支出을 표준생계비 산출의 기초로 삼고 있다.⁴⁰⁾ 그러므로 표준생계비 즉, 표본의 中位消費支出인 1,308,000원을 상대빈곤선의 상한선으로 간주하고 모든 방법들 중에서 가장 낮은 값을 보인 알렌-보울리방법의 빈곤선 222,462원을 하한선으로 사아서 그 범위 안에서 상대빈곤선으로 타당한 지점을 설정했다.

전체 표본의 하위 32.5% 계층의 소득 1,075,406원은 평균소득의 71.6%, 중위소득의 80.5%, 앵겔계수 36%로서 相對的 貧困線으로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인구의 32.5%를 빈곤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다소 높다고 생각할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빈곤선은 한 사회 내에서의 불평등 만을 기준으로 설정될 수는 없고 저소득층이 일반적으로 기본필요의 충족을 못시키고 심각한 박탈을 겪고 있는 비목이 있을 때는 그 비목의 기본필요 충족수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현재 한

39) “'87, '88 표준생계비의 산정과 몇가지 문제점”, 경제학 연구, 제38집, 제1호, 1990
 40) Magrabi, F. M., et al The Economics of Household Consumption, Praeger, New York, 1991

국사회는 선진국에서는 公共財로 간주되고 있는 教育기회의 受益者 負擔에 입각한 商品化 현상이 보편화되어 있어서 저소득층의 실제 教育비 지출 정도로는 마땅히 국민으로서 받아야할 教育을 제대로 못받고 있는 실정이다⁴¹⁾. 또한 저소득층은 저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렸어도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실정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이 현재 지출하고 있는 醫療費보다 더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⁴²⁾ 뿐만 아니라 이 자료에는 歸屬賃貸料가 제외되었기 때문에 주거비 불평등의 정도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현재 한국사회의 저소득층의 주거수준은 대단히 열악하며 실제로 오르는 집세를 감당할 만큼의 저축을 하지 않으면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살고 있어서 같은 주거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저축은 $\frac{1}{20}$ 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이 빈곤선은 결코 높게 설정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표 8> 客觀的 接近方法과 統計解釋的 接近方法으로 算出된 貧困線 比較

빈곤선(원)	설정 기준
1,308,000	평균소비의 중앙값(표준생계비)
1,229,308	소득계층 하위 42.5%의 소득
1,096,819	하위 30%-35%계층의 평균소득
1,075,406	하위 32.5% 계층의 평균소득
1,050,601	평균소득의 70%
1,046,400	중위소득의 80%
992,313	소비의 최빈값
960,436	소득계층 하위 20%-25%의 평균소득
805,200	소득계층 하위 10%-15%의 평균소득
784,800	중위소득의 60%
782,579	소비계층 하위 40%-45%의 소비
757,632	평균소비의 75%
750,429	평균소득의 50%
749,835	1/20분위계층의 실제 섭취식품 기준 최저식품비와 앵겔계수 33.3% 기준의 빈곤선
713,414	1/20분위계층의 실제 섭취식품 기준 최저식품비와 앵겔계수 35% 기준의 빈곤선

41) 류정순과 이희자, “도시근로자 가계의 계층별 교육비 비교”, 생활과학학회지, 1995

4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인의 건강과 의료 이용실태, 1995

694,509	소비계층 하위 30%-35%의 소비
667,240	전환회귀모형법의 빈곤선
654,000	중위소득의 50%
634,703	절약식단 기준 최저식품비와 앵겔계수 33.3% 기준의 빈곤선
591,420	적자-흑자전환법의 빈곤선
571,232	절약식단 기준 최저식품비와 앵겔계수 37% 기준의 빈곤선
528,390	절약식단 기준 최저식품비와 앵겔계수 40% 기준의 빈곤선
505,088	소비의 50%
500,286	평균소득의 1/3
469,680	절약식단 기준 최저식품비와 앵겔계수 45% 기준의 빈곤선
436,000	중위소득의 1/3
392,400	중위소득의 30%
325,588	소비계층 하위 0%-5%의 소비
303,053	평균 소비의 30%
288,871	소비함수법의 빈곤선
222,462	알렌-보울리법의 빈곤선

5. 1995년의 相對的 貧困線으로의 適用

設定된 生計費를 다른 연도에 적용하는데는 消費者 物價指數, GNP디플레이터, 消費支出額 變化率 등을 이용할 수 있다. 93년의 물가수준에 기초한 相對貧困線을 95년으로 전환시키는데 消費者 物價指數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經濟成長의 結果 전반적으로 나아진 生活水準을 고려해야 한다. 레인워터⁴³⁾는 1946년부터 1969년에 걸친 갤럽여론조사의 主觀的 貧困의 분석 結果 貧困線의 所得彈力性이 0.18임을 밝혔다. 그러나 킬패트릭⁴⁴⁾ 또한 같은 갤럽 輿論調查 結果를 이용하여 貧困線의 所得彈力性을 계산하였는데 이 값은 0.55에서 0.66 사이의 범위에 있다. 이 격차에 대하여 이준구⁴⁵⁾는 킬패트릭이 레인워터의 粗野한 분석보다는 훨씬 엄밀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우리나라의 研究에서는 박순일외⁴⁶⁾이 소득탄력성을 산출했는데 最低生計費 육구수준의 所得彈力性을 0.632로 算出하였다. 이 값이 우리나라에서 算出된 유일한 자료이며 킬패트릭의 研究結果와 비슷하므로 본고에서

43) Rainwater, L., What Money Buys, New York: Basic Books, 1974

44) Kilpatrick, R., "The IncomeElasticity of the Poverty Line," Review ofEconomics andStatistics, Vol. 55, 1973, pp 327-332

45) 이준구, 전계서

46) 박순일외, 저소득층 사회복지 수요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1

는 所得彈力性 0.632를 이용하였다. 1993년의 빈곤선을 1995년의 水準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등식을 이용하였다.

$$M1 = Mo + pMo + y E Mo \\ = Mo[1 + p + y2(1+y1)E]$$

여기서 M1는 95년의 貧困線

Mo는 93년의 貧困線: 1,075,406원

p는 同期間의 消費者 物價 上昇率: 11.0%

y1는 93 -> 94년의 實質所得 上昇率: 8.6%

y2는 94 -> 95년의 實質所得 上昇率: 9.0%

E는 最低生計費의 所得에 대한 탄력성: 0.632

위의 식에 대입하여 算出한 결과 1995년의 相對貧困線은 1,260,130원이었다.

V. 要約 및 結論

본고에서는 선행연구의 測定方法에 따른 貧困分類의 이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規範的 接近 方法, 合意的 接近方法, 統計解釋的 接近方法, 客觀的 接近 方法과 剝奪指標方法의 5가지의 분류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가능한 모든 統計解釋的方法과 客觀的方法으로 貧困線을 測定하고 각 方法으로 산출된 貧困線을 비교하였다. 그리고 산출된 빈곤선들을 토대로 1995년 한국도시사회의 4인가계의 相對的 貧困線을 1,260,130원으로 설정하였다.